

인권감수성 UP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광주인권지기 활짝/광주여성의전화
_박수경(onlyu98@daum.net)

강사소개

現 광주여성의전화 성평등교육원장

現 광주인권지기 활짝 활동가

現 근현대 한국 주변부 여성의 경제활동 구술자료 아카이브팀연구원

광주지방경찰청 성평등감수성 교육 위촉 전문강사

국방부 성인지감수성 교육 위촉 전문강사

광주식약청 성고충처리외부위원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위원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이팝너머 장애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간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폭력예방교육 통합강사



인권감수성 up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CONTENTS

1. 인권감수성 개념
2.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
3. 코로나 19와 인권
4. 일상에서의 인권감수성 실천



교육의 필요성

공직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시민의 일상을 조력하며, 공익을 추구할 의무 <조력자>

국가의 법, 정책을 집행하는 자로서 제도 변화의 리더
국제적 동향에 맞는 인권에 대한 감각이 요구 <옹호자>

인권 + 감수성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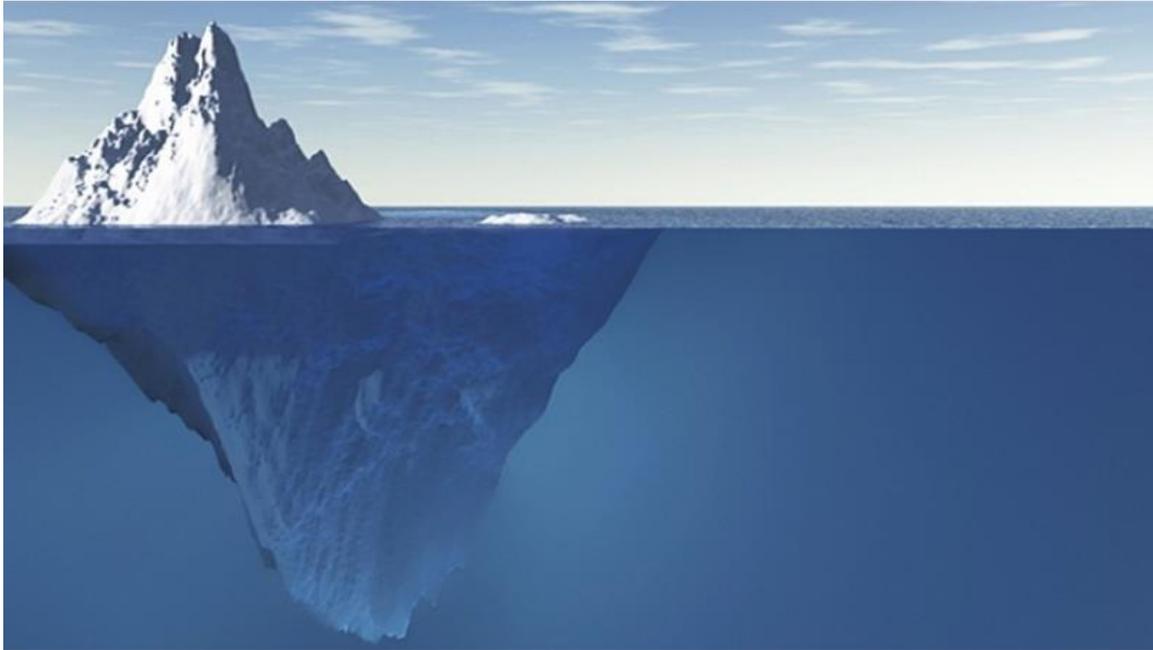




인권감수성 개념

- 차별과 부정의,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 타인의 입장, 역사, 경험, 상황, 조건을 최대한 **공감**하는 것
-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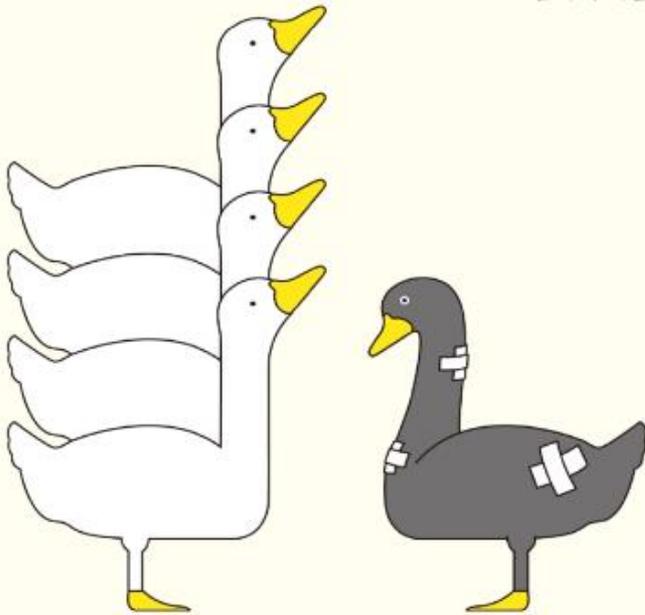


차별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차별은 나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무심결에, 혹은 실수로,
혹은 그게 차별인지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차별이 많을 뿐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
·
·

“‘장애’라는 말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장애' 또는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말~ 말! 말!

불행한 삶

극복, 장애를 딛고
일어선

불구(자),
손상,
휠손

무서움

부족함/열등함

빈곤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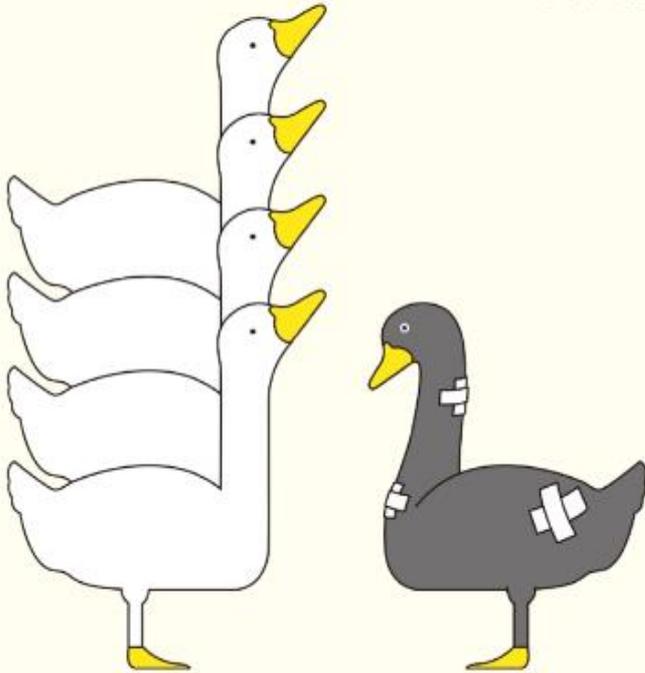
돌봄과
보호

불쌍함

비정상/
결함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한국인 다 되었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
·
·

“어린이집에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외국인 원생 있으면 싫어한다고
거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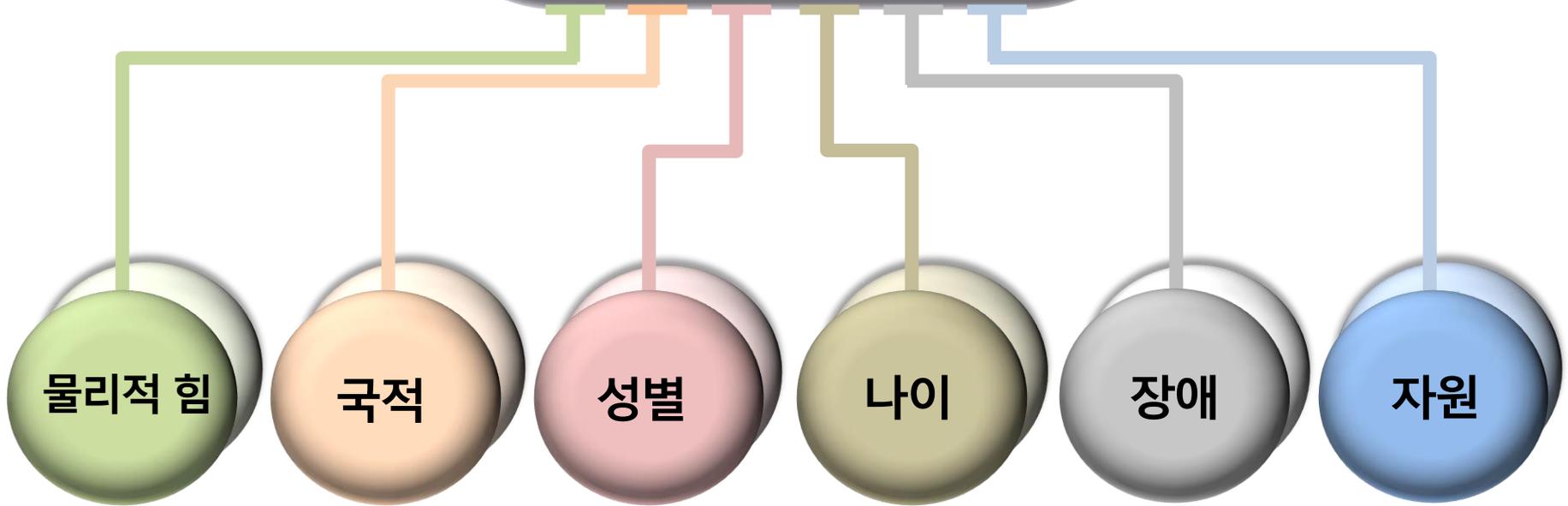
·
·
·

“종례 뒤 선생님이 다문화 남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힘[권력]의 차이



< 출처 :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성인지감수성 교육강사단 역량강화 직무연수 3차 자료 >

임신
출산

범죄

외모

사상

성적지향

학력

나이

장애

직업

가족형태

경제수준

국적

종교

혼인여부

성별

피부색

우리를 가르는 수많은 사회적 기준들

직장인 사전



상사 : 혼자 먹기는 싫지만 밥을 사주기도 싫은 딜레마의 시간

부하 : 상사의 입맛이 좀 다양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



상사 : 부하직원을 갈 굴 때 입에 무는 간지 아이템

부하 : 지랄 맞은 상사 뒷담화하러 갈 때 챙기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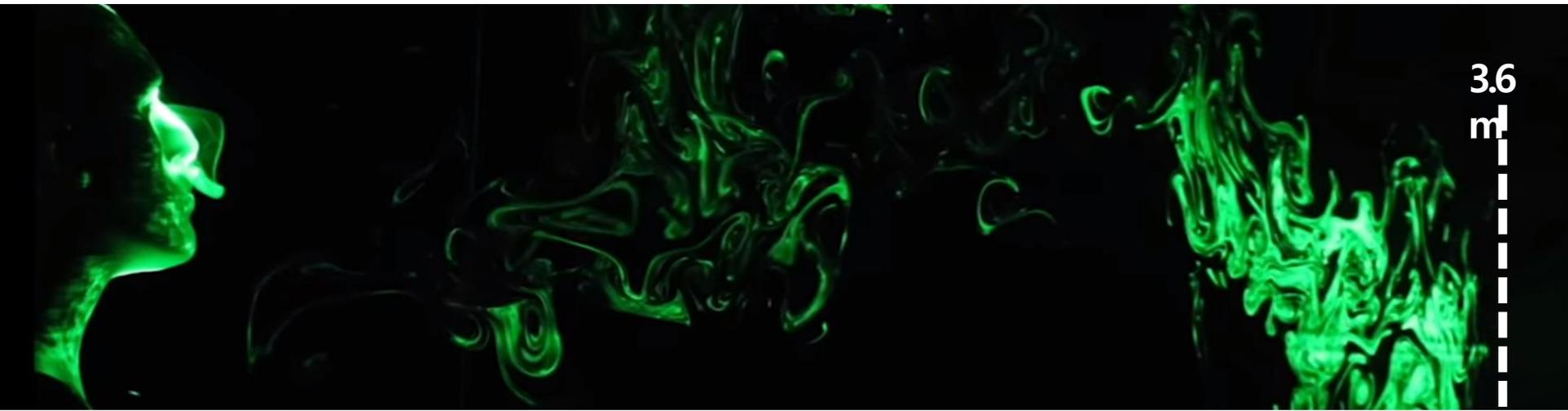
차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코로나 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 일상' 실태 조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6
m



6.35 cm

출처 : Verma, S, Dhanak, M., & Frankenfield, J. (2020) Visualizing the effectiveness of face masks in obstructing respiratory jets. Physics of Fluids, 32, 061708.

코로나 19는 '사회적 재난'이다.

-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 세대, 젠더에 따른 불평등 지속적 확대
-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이 드러나지만 개인적 일시적 불편함으로 치환
- 가족의 문제, 돌봄의 이슈가 코로나 위기에서 어떻게 변화, 심화되는지?

인권의 상호의존성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무너진다

상호 헌신과 연대의 가치

코로나 19와 인권: 노동자/건강권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sxdBf/> 뉴스타파.2020.70.16.

코로나 19와 인권: 노동자/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 화물, 건설기계, 셔틀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 경마기수, 간병인, 방과후강사, 학습지도사 등 250만 노동자가 '특수고용'으로 분류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음.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보험3권~~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

코로나 19와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_인식의 프레임 자체가 갖는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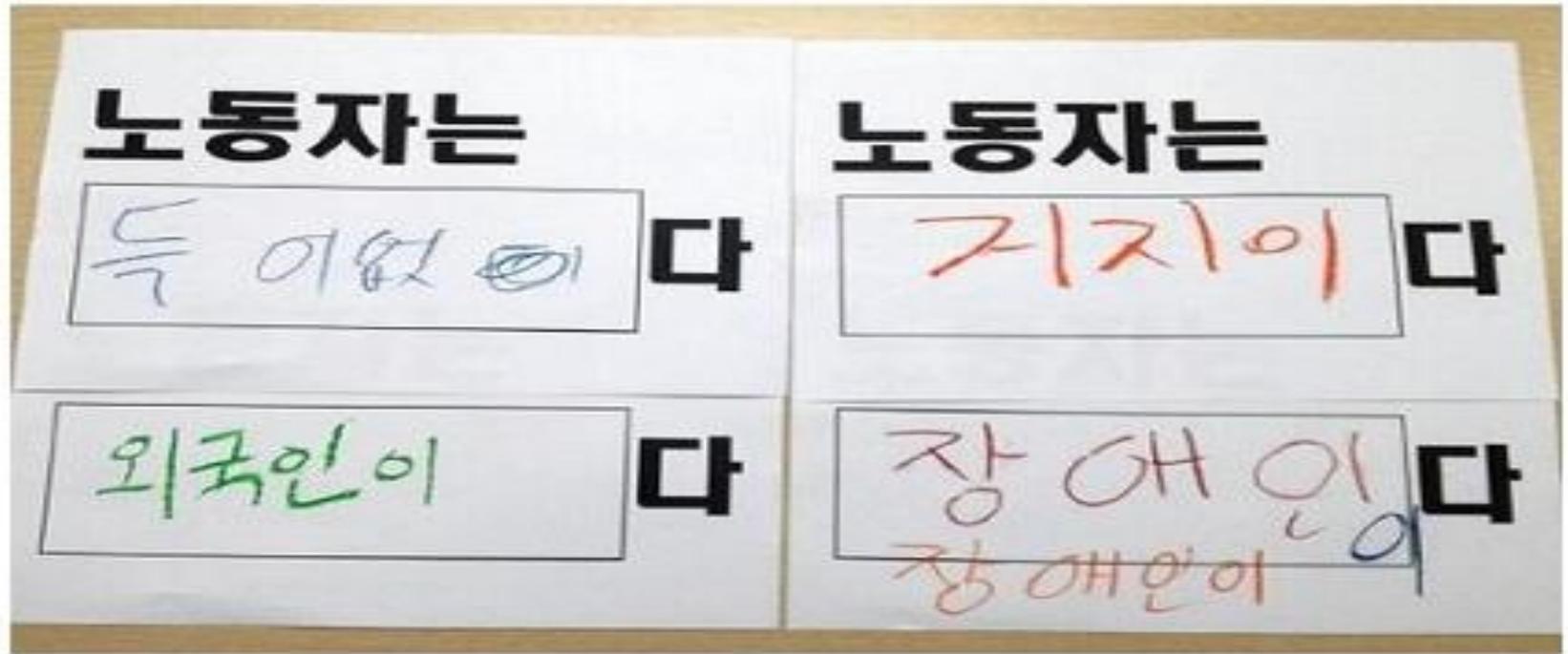


RT "노동자는 ()다."에 답한 청소년들의 대답이란다. 슬프도록 고통스런 우리의 현실이다. pic.twitter.com/ymaqtwy5hb

사진 숨기기

← 답글 리트윗 ★ 관심을 달기 ... 더 보기

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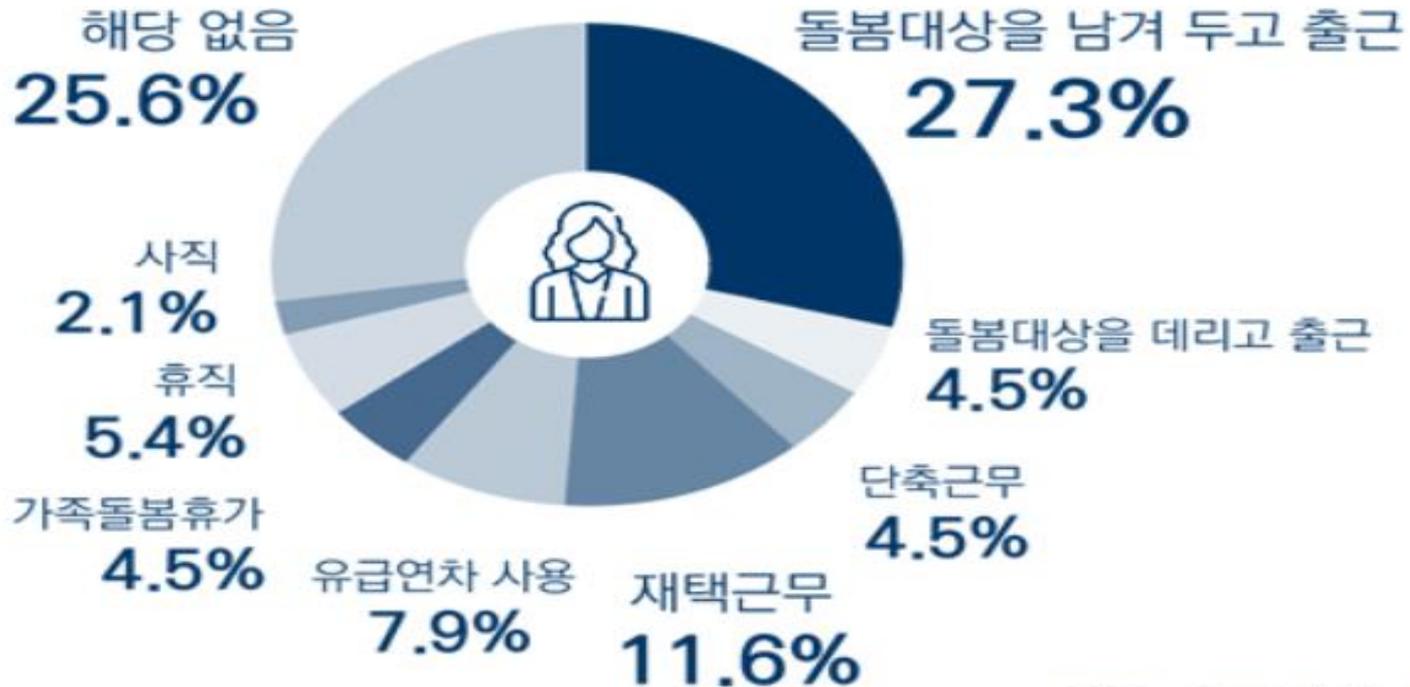


“치킨과 수능과의 상관관계”

-한 중학교 책상에 쓰여진 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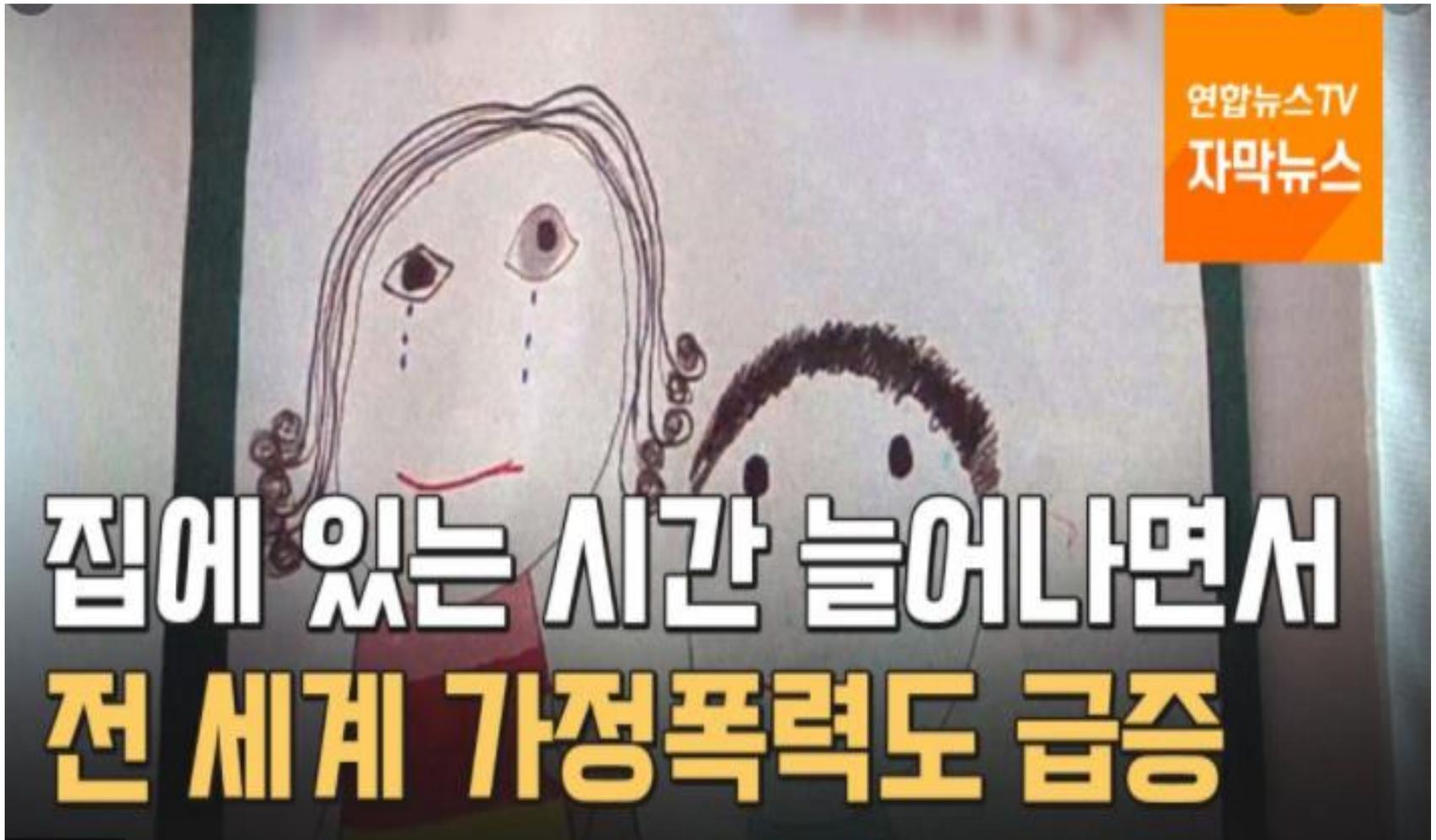
1 2 3 등급 치킨도 시키고
4 5 6 등급 치킨도 튀기고
7 8 9 등급 치킨도 매달고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노동, 어떻게 해결했나?



자료 : 한국여성노동자회

코로나 19와 인권: 가정폭력



<출처: 연합뉴스 2020.4.3.>

배고프고 외로운 집

"선생님, 언제부터 센터에 갈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배고프고 재미도 없어요."

방학이면 오빠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시간을 보냈던 지선이(가명)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센터에 나올 수 없게 되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19와 인권: 아동청소년_공공시설 이용 문제



<2020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 2단지 놀이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는 무조건 고립 X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 각종 재난의 비상상황은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담는다.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 규범, 문화를 반영한다.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

뉴스 관련도순 최신훈

서울 확진 줄고 '깜깜이' 늘었다...경로미상 25.6%→28.8%

뉴스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13~19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깜깜이 환자'가 4분의 1... "대중교통 동선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PICK 2시간 전 네이버뉴스

코로나19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연일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자를 분류하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통해 확진자가 늘고...

4명 중 1명 '깜깜이 환자'... "대중교... 파이낸셜뉴스 | 38분 전 네이버뉴스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코로나 '깜깜이 환자'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깜깜이'는 '불명확한 감염경로' 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인데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 관리청은 지난달 31일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인권감수성 실천_성평등 사전

성평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

직원, 교수,
의사, 경찰 등

여○○

특정 직업군에 '여'를 붙임으로써 남성과 차별화하는 표현은 이제 그만!

저출생(低出生)

저출산(低出產)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표현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바꿔 주세요.

비혼(非婚)

미혼(未婚)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혼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유아차(乳兒車)

유모차(乳母車)

유아가 타는 이동수단으로 부모, 보호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결손가정(缺損家庭)

불완전한, 부족한 상태로 표현된 기존의 부정적인 말을 바꿔 주세요.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몰래 하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현행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현해요.

KBS 아나운서실 | 국민대 홍보팀

KBS 아나운서실이 본교에 매월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



<출처>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동성애 자연스러운 그 이치를 깨달은 세계 정치인들 ' 2017.4.28.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



Lise Gregoire @LiseGvH · 4월 3일

Male colleagues of @NLatUN walking hand in hand in New York protesting against violence directed at LGBTI #allemannenhandinhand



42 1,111 2,383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가이드라인

의전 간소화

- 내빈 소개 지양
- 인사말(축사, 환영사) 간소화
- 내빈 중심의 행사운영 지양
- 지정좌석 최소화

행사운영

- 사전교육제공(인권적 용어사용, 인권침해예방)
- 진행요원 식사 및 휴식보장(사회자 의자, 휴게공간 마련 등)
- 성평등한 업무 분장
-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가이드라인 적용

정보제공

- 안내소 설치 운영
-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 사진영상촬영 시 고지와 동의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가이드라인

참여권 보장

- 교통약자를 고려한 동선 배치
- 통역제공(점자, 수어, 자막, 보이스 아이)
- 영유아 공간 및 돌봄 지원(유아차, 휠체어 확보, 돌봄지원사 등)
-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지원

편의시설 확보

- 화장실(장애인, 가족형, 성중립 등) 확보
- 성비를 고려한 화장실 확보
- 자유로운 장내 이동확보(경사로, 주차공간, 점자블록 확보)
- 선택가능한 식단(채식 등) 제공

친환경 운영

- 1회용품 사용 자제
- 현수막/인쇄물 제작 최소화
- 쓰레기 분류수거 실시
- 기념품, 포장 최소화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_제도적 차원

제설작업의 순서만 바뀌어도?!

제설작업은 주도로에서 시작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끝났는데,

(중략)

칼스코가 시의원들은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시하도록 제설 순서를 바꿨다.

비용 차이는 없었고, 8cm 두께 눈 속에서 유모차를 미는 것보다는 운전하는 편이 더 쉽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이 결정은 여성들의 겨울철 보행 사고를 줄이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한다.

제설 순서가 일부러 여자를 희생해 남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조직문화

일상에서 자주 하고, 듣는 말	구성 요소	조직 구성원 수만큼 다양한 의견들
<p>"와~, ○○님, 예뻐지셨네요."</p> <p>"이번 신입은 외모로 뽑았나 봐요."</p> <p>"자기관리 좀 하지. 살 좀 빼면 훨씬 좋을 텐데..."</p>	외모 평가	<p>"외모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p> <p>※ 외모나 몸매로 인사하거나, 복장 평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p> <p>※ 외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p>
<p>"남자가 무슨 화장을 하고..."</p> <p>"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맨 얼굴로 출근을..."</p> <p>"화장하니까 예쁘네~"</p>	화장	<p>"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p> <p>"화장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p> <p>"꾸밈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p> <p>※ 화장 여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개인 취향 존중하기</p>
<p>"품위 없이 미니스커트(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다니... 예의 없이..."</p> <p>"역시 옷이 날개군요."</p> <p>"옷걸이가 좋아서..."</p>	옷차림	<p>"품위와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p> <p>"옷이 날개라고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 주세요."</p> <p>※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p>
<p>"역시 이런 일은 남자(여자)가 잘해."</p> <p>"경비는 남자, 비서직은 여자들이 하는 게 당연하지."</p> <p>"민원부서는 아무래도 상냥한 여직원이..."</p>	성역할	<p>"여자 일, 남자 일이 따로 있나요?"</p> <p>※ 성별에 따른 역할을 기대 또는 요구하거나 성차별적 업무 분장하지 않기</p>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

<p>“여직원”, “남직원”, “여교사”, “여사장” “우리 과장님 여잔데 리더십이 아주 탁월해요.”</p>	<p>호칭 (성별 구분)</p>	<p>“직원”, “교사”, “사장” “우리 과장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해요.” ※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p>
<p>“언니”, “형님”, “누님”, “막내” “이모님, 어머님, 아저씨”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p>	<p>호칭 (가족 주의)</p>	<p>“**씨”, “**님” 또는 직급이나 별칭 사용 “여긴 집이 아닌 직장입니다.” ※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명확히 하고, 공적영역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 맺도록 노력하기</p>

<p>“세상 많이 좋아졌네. 여자가 흡연실에서 남직원들이랑 담배를...” “여자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피워야 하는 거 아니야?”</p>	<p>흡연</p>	<p>“흡연은 본인의 선택.” “흡연실은 남자들만의 전용공간이 아니에요.” “여자라는 이유로 안 보이는 곳에서 피워야 하나요?” ※ 개인의 취미, 기호, 성향에 대해 존중하고 성별 고정관념 버리기</p>
<p>“술 한 잔 마시면서 친해지자고 하는 건데...” “남자가 술 한 잔도 못 마셔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2차는 남자들끼리만...”</p>	<p>음주 문화</p>	<p>“술을 마시지 않고도 친해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음주 여부나 주량으로 인성이나 사회성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즐거운 회식문화 만들기 ※ 잘못된 음주문화, 접대문화, 유흥문화 개선하기</p>
<p>“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군대를 다녀와야 철들어요.” “군대를 다녀와야 진짜 남자죠.” “공익 다녀와 놓고 무슨 군대 이야기를...”</p>	<p>군대 문화</p>	<p>“회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상명하복의 지시체계 대신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로 바꾸어 보아요.” ※ 위계와 서열을 당연시하는 언행과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 군대 용어 자제하기</p>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실천_개인적 차원

인권교육을 잘 받고
편견, 고정관념, 통념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격모독, 비하발언, 혐오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국가는 권리주체에게
존중 (Respect),
보호 (Protect),
실현 (Fulfill)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오늘 교육 어땠나요?

새롭게 배운 점

교육을 통해 느낀 점

나에게 인권이란?